

“책을 ‘다루는’ 방법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책의 학교’ 허창성 교장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최선호)이 ‘책의 학교’를 열었다. 지난 6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국출판협동조합 강당에서 열리는 ‘책의 학교’는 출판유통에 대한 다섯개 과목을 개설해 오는 7월 19일까지 서점 및 출판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교장인 평화출판사 허창성 대표(66)를 만났다.

— 이 학교를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

“예전에 ‘서점대학’ ‘서점학교’를 열어 서점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한 적이 있다. 이번에 문물연 ‘책의 학교’는 서점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실시한다. 또한 출판도 하나의 산업인 만큼 이제는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편집과 디자인에 대해 가

르치는 곳은 많지만, 출판 유통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곳은 없다는 지적이 있어 개설하게 됐다.”

— 교육 대상은?

“출판 유통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출판사 영업을 배우려는 사람, 서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편집을 제외한 출판 유통과 마케팅 전반에 걸쳐 강의한다고 보면 된다. 현재 출판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수강하면 유익할 것이다.”

— 어떤 교육 과정이 개설돼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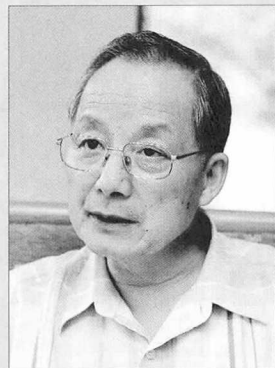
“크게, 기본교육과 출판유통의 여러 지식, 마케팅, 경영관리, 정보화 활용 등 다섯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전화 예절 등 고객 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비롯해 출판유통과 관련된 법규, 점포관

리와 관련한 여러 사항, 판매관리법, 외국서점의 경영전략 등 책을 ‘만드는 방

법’이 아닌 ‘다루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강의한다.”

— 출판에서 유통 분야가 낙후됐다는 지적과 함께 좀더 선진화·체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제 출판의 유통환경도 바뀌어야 한다. 출판은 디지털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야다. 다행히 전자책 개발 등 요즘 들어 출판이 디지털과 조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 최갑수 기자



국내의 대표적 인 대학교재·학술도서 전문 출판사들이 전자책 분야에 진출한다.

교문사, 교육과학사, 나남출판, 박영사, 백산출판사, 법문사, 석정, 세계사, 지구문화사, 집문당, 한울 등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소속 28개 출판사 대표들은 최근 공동 출자해 가칭 ‘학술·전문 도서 사이트’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다산출판사 강희일 대표(56)는 “대학교재와 학술 도서의 불법 복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법 복사 문제를 근절하고 대학교재의 올바른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

대학교재·학술도서 전문 출판사, 전자책 진출 모색해

〈학술·전문도서 사이트〉 만드는 다산출판사 강희일 대표

해 이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연말쯤 문을 열 예정인 이 사이트는 종이책의 형식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는 POD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가격은 종이책 값의 40~50% 정도로 책정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부분만 다운로드받아 출력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인데, 이용료는 페이지당 10원에서 15원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고 강대표는 밝혔다.

이 사이트는 지금까지 출간된 종이책 가운데 대학생들이 많이 읽는 것들을 우선 올릴 계획이다. 지금은 각 출판사의 대표적인 책을 전자책화하고 있는 단계다. 또한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IT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강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한국출판협동조합’

과 연계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준비중인 인터넷 서점에 우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 따로 법인체를 구성, 독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대표는 “전자책에 대한 지금의 저작권법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금의 저작권법은 국내의 도서관이 무료로 전자책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전자책 사업에 뛰어들 것은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다”고 말했다.

— 최갑수 기자

출판인회의, '사재기'에 대한 입장 밝혀 · 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 이하 회의)는 지난 6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출판사들의 자사 책 '사재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회의 측은 사재기가 독자를 기만함으로써 출판 문화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못박고, 앞으로 사재기 관행을 막기 위해 회의 산하에 '올바른 출판 환경을 위한 특별 위원회' (가칭)를 두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펴나가기로 다짐했다. 또 이후에 사재기를 계속하는 출판사와 이를 조장하는 서점에 대해서는 업계에 명단을 공개하고, 회원사일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3444-0623

저작권 세미나 열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용)는 지난 6월 28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을 주제로 저작권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이 '전자책의 현황과 권리처리 실태'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경일 교수(김포대학 전자출판과), 이상운 바로북닷컴 사장과 토론했으며, 이어 박성호 변호사가 '전자책과 설정출판권 제도'를 발표하고 김현철씨(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우상일 사무관(문화관광부 저작권과)과 토론을 벌였다.

영진닷컴,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열어

영진닷컴(대표 이문철)은 오는 7월 16일부터 '테크니컬라이터 & IT출판기획자 양성 IT아카데미'를 연다. IT도서 저자, IT도서 기획자, 테크니컬라이터, 콘텐츠제공자를 지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한달간 접수받고 있다.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후 입금선착순으로 마감. ▲강의기간 : 2001. 7. 16 ~ 9. 22(총 2개월). ▲시간 : 월, 수, 금(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수강료 : 60만원.

⇒www.youngjin.com

간행물윤리상 시상요강 발표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제12회 간행물윤리상 시상계획을 발표했다. ▲시상부문 : 윤리대상, 청소년, 저작, 출판제작, 독서진흥 부문. ▲제출서류 : 추천서, 후보자 공적조서, 이력서,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접수기한 : 2001. 9. 29(토)까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홍보기획팀 ▲수상자 발표 : 2001년 10월 중 개별통보.

⇒www.kpe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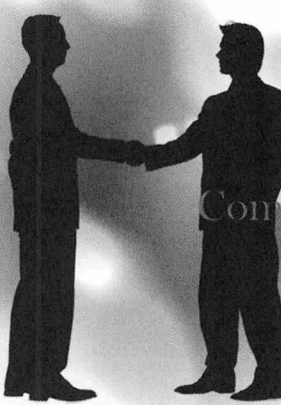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2001.6.17~6.23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열한번째 사과나무	이용범	생각의나무	소설
2	상도(1)	최인호	여백미디어	소설
3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	비소설
4	눈물꽃	김민기	은행나무	소설
5	블루 데이 북—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브레들리 트레버 그리브	바다출판사	비소설
6	날씨가 너무 좋아요	황주리	생각의나무	비소설
7	마이너리그	은희경	창작과비평사	소설
8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호리바 마사오	오늘의책	비소설
9	사슴벌레 여자	윤대녕	이룸	소설
10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1)	로버트 기요사키 외	황금가지	사회과학

| 한국서련 · 출판협회 공동 집계 |

다음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사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켈린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S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 darumman@korea.com



design partner **darum**